

# 청소년 운동선수의 주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에서의 관절경적 치료

김진섭, 김완홍, 유정한, 정영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남 성심 병원

## 서 론

“Little leaguer’s elbow”은 소두 박리성 골연골염을 비롯한 주두 내측 상과골단염, 요골두 골연골염, 주두 및 관절낭 손상 등을 포함한 모호한 용어이지만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주관절을 과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통증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중 주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은 특히 반복되는 던지기 동작에서 잘 발생되며 부상전 경기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종래의 치료 결과들에서는 보고하고 있다. 최근 MRI 등의 발달로 조기 진단 및 관절연골의 손상 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며, 관절경 술기 및 관절연골 손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치료 결과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에 본 교실에서 최근 5년간 청소년 운동선수들에서 발생한 주관절 소두 박리성 골연골염의 관절경적 치료 경험 8예를 관찰 보고하고자 한다.

## 재료 및 방법

총8예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전례에서 주관절 통증, 운동후 부종, 주관절 신전범위 제한(10-30도)과 주관절 운동시 click은 5예에서 확인되었다. 평균연령15세(14-18세), 평균병력 11개월(3-24개월)로 단순 방사선사진 및 자기공명 조영술을 통한 골연골 손상정도(ICRS 분류)를 분석하였다. 관절경적 관찰로는 측외위로 주관절 전·후방 관절낭을 동시에 관찰하였고 후방 소두의 관찰은 후외방 및 soft spot portal을 주로 이용하였다. 관절연골의 손상정도에 따라 관절내 유리체 제거 및 변연절제술 1예, 박리된 연골의 제거 및 연골하 다발성 천공술은 3예, 관절 연골 및 연골하 골조직을 Acutrak을 이용한 재부착술은 4예에서 시행되었다. 술후 추시는 평균 8개월(3-26개월)이었고 결과는 Mayo elbow performance index 중 동통, 운동범위, 기능과 술전 스포츠로 복귀여부로 평가하였다.

## 결과 및 결론

술전 사측면 방사선상, MRI 및 관절경적 관찰에서 ICRS OCD, III(5예), IV(3예)로 박리성 골연골염의 손상정도 평가에서 방사선 사진, MRI 검사와 관절경적 관찰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술후 통증(45점)은 10점에서 35점, 10도이내의 신전장애 3예를 제외하고 5예에서 완전한 운동범위를 회복하였고 추시기간이 짧은 2례를 제외하고 술전 운동활동에 복귀하였으며 수술 결과에 주관적 만족을 보였다. 청소년기의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한 많은 보고들을 분석하면 치료 결과가 매우 다양하며 본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대상 예가 많지 않고 치료 방법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 단순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조기 진단과 관절연골의 손상정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